

방만한 쏘기업

75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보고서는 공공기관들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산하기관들이 담당하는 사업의 형평성·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인력구조와 업무시스템도 불안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창사기념품이 200만원 노트북

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공사는 2006년 단합에서 공사는 19개의 노조 요구사항 가운데 8개를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생일지원 제도(5만원씩 연 1회 지급), 창사 25주년 기념 전 직원 금강산행(총 2억4천만원)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창사 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총 6억8천만원), 월 5만원의 체력단련비 지급(총 2억4천만원) 등의 요구사항은 관철됐다. 이런 단합 타결내용은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공사의 직급별 구성은 과장급 이상이 67%인 향아리형 구조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관리는 제도·기준의 개선 노력에 비해 소득과약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그 성과가 흡족하지 못하다. 소득과약의 어려움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결정시 신고권장 소득월액을 활용해 소득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입자의 신고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국제적 자료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고에

원장 추천위에 감독 당국 공무원 대거 포함

곳곳 예산낭비...인력·업무시스템도 멋대로

의존하고 있다.

▷마사회= 마사회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한 선진 경마산업 연수와 국내 지방사업장 시찰 등은 지나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사업은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해 전국 16개 시도에 축구센터 1개소당 12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축구공원 1개소당 19억6천만원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립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도 의문스럽다. 따라서 기금사업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평가원의 원장 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 5명,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사 선임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과 업무이해도를 높인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부위원 4명 모두를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것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원장추천위의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이사장 추천위를 구성해 2개월간의 공모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공익위원 구성에서 이사장의 리더 역할이나 관리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위원 추천시에는 중앙인사위의 인제DB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 위원 추천시에는 중앙인사위의 인제DB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환경관리공단= 공단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 4명과 공무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공무원 3명은 주무부처(환경부)의 실·국장들이어서 주무부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소지가 많다. 개선돼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단은 김해·남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히 평가돼야 하지만 골프장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비서실 인원이 실장을 포함해 4명으로 너무 많다. 공공기관운영법이 통과되면서 비서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은 공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비서실이 정말로 4명 규모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도시개발구역내 건축물 신축 제한 시점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

도시개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시점이 지구지정단계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이 부여돼 이전기업이 해당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통합신당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알박기 등을 막기 위해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행위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구역지정 이후부터 행위제한이 이뤄지도록 돼 있어 주민공람일 이후 지구지정 사이에 건축물신축이나 토지형질변경, 공장신설 등의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이전기업에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지금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주고 있다.

"과도한 규제 금융발전 막는다"

대한상의 500개 기업 재무담당자 조사

국내기업 재무담당자들은 금융산업 발전의 첫 번째 걸림돌로 '과도한 금융규제'를 꼽았으며 가장 낙후된 분야는 '글로벌화'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준식)는 전국 제조업체 500개사의 기업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재무담당자가 바라본 금융산업 현황과 과제' 조사 결과 국내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금융규제'를 든 기업이 36.5%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이어 '낮은 상품경쟁력'(25.5%)과 '낮은 금융서비스 질'(21.5%), '금융 전문인력 부족'(15.7%)이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금융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54.0%)는 의견이 '비슷하다'(38.1%)와 '높다'(7.9%)는 응답의 합보다 더 많았으며 국내 금융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54.4%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처럼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이 금융선진국보다 낮게 평가 받은 이유는 '금융기관 글로벌화 부진'(31.8%)이 가장 많이 꼽힌 가운데 '금융상품의 낮은 경쟁력'(23.7%), '후진적인 금융서비스'(23.1%), '금융인력의 전문성 부족'(17.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금융산업의 부문별 수준에 관한 평가에서도 '글로벌화'가 5점 만점에 2.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아차 9월 한달 11만 635대 판매

작년보다 0.9% 감소... 유럽형 스포티지 호조

기아차는 지난 9월 한달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한 11만635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에 비해서는 실적액이 15.3% 증가했다. 내수는 2만356대로 지난해 9월에 비해 24.6% 감소했으나, 수출은 9만279대로 6.6% 증가했다.

기아차는 "후석연료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로 내수는 줄었으나,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쉐드 1만634대와 스포티지 3천976대 등 총 1만4천610대를 생산·판매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유럽에서 생산된 유럽형 스포티지는 8월까지 1천여대 판매에 그쳤으나, 9월 3천976대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

이와 함께 오프리스는 지난 9월 한달간 1천627대가 국내시장에서 판매돼 고급 대형차 시장에서 16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1달러 = 913.70원

원-달러 환율

10년만에 최저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40원 떨어진 913.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마감가 기준으로 외환위기가 직전인 1997년 10월 2일의 913.50원 이후 10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0.40원 오른 915.5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지만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913.70원으로 밀렸다.

이후 환율은 914원선으로 복귀한 채 공방을 벌인 뒤 장막판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913.60원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세계적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환율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직후인 지난달 19일 이후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화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면서 유로화에 대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내 주가가 상승하면서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 다가선 점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제감으로 한 때 하락세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실제 개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감 매물이나오자 낙폭을 확대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외환당국 개입을 예상하고 달러화를 샀던 은행들이 손절매도에 나서면서 연저점이 깨졌다"며 "역외시장에서 910원선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1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1.40원 떨어진 913.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환위기가 직전인 1997년 10월 2일의 913.50원 이후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서울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달러들이 낙심한 표정을 짓고 있다.

SK그룹 여수 박람회 총력 지원

최태원 회장 "한국경제 성장 기회 될 것"

SK그룹(회장 최태원·사진)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 지원체제에 들어갔다.

SK그룹은 오는 11월 27일 개최자가 결정되는 세계박람회를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계열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유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고 1일 밝혔다.

SK그룹은 이와 관련,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오는 10월말 혹은 11월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문화행사 관련 비용 5억원 전액을 후원키로 결정하고 1일 유치위원회에 이를 전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여수 세계박람회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람회 유치는 물론이고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 달라"고 그룹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SK그룹측은 지난 2월과 8월에도 각각 11억 원과 1억 원을 후원한 바 있어 이날 지원을 포함하면 모두 1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SK그룹은 지난달 13일부터 3일간 서울과 여수에서 열린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국제 심포지엄' 행사장에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영상전화,



모바일 웹서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첨단 정보기술(IT)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었다.

SK그룹은 또 세계박람회 유치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오는 11월 27일 파리 BIE 총회에 SK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급을 단장으로 하는 SK 유치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여수박람회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현철 SK에너지 사장은 해외 출장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몽골을 방문한 신 사장은 영호비야르 몽골 대통령과 영호볼트 총리와 각각 만나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경쟁의 룰 바꾸겠다"

통합 신한카드 이재우사장 밝혀

통합 신한카드 이재우 사장은 "금융그룹의 전문 카드회사로서 카드업계 경쟁의 룰을 바꿀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재우 사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카드와 신한카드의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신한카드 출범식에서 "이 미 성숙기에 접어든 카드업계의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통합 신한카드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신한카드가 국내 카드업계 1위는 물론 아시아 대표카드사의 지위도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발언은 은행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독립 카드사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카드업계에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라옌한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이날 축사에서 "통합 신한카드의 출범으로 신한금융그룹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거듭났다"며 "국내 최고, 아시아 1위에 안주하지 말고 전세계의 카드 사업자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일류카드사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5년내 운용자산 3배로 늘릴 것"

박현주 회장 WSJ 인터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해외 시장 확장을 통해 현재 500억 달러 규모의 운용자산을 5년 안에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1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보도했다.

박현주 회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런던 진출은 현재 영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는 단계다. 현지화 전략을 확대하면서 임지를 다져갈 것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싱가포르와 중국, 홍콩, 인도에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베트남에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박 회장은 "5~10년 후 아시아 시장이 세계 경제 트렌드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유사성과 이제까지 아시아 시장에서 거둔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 기업에 맞설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3세 경영 준비

창업주 손자 양홍석씨 전무 선임

대신증권이 3세경영 시대를 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1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양재봉 대신증권 창업주의 며느리인 이어통 회장의 장남 양홍석(26)씨가 이날 임원 인사에서 전무이사로 임명됐다.

〈명단 20면〉 지난해 7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평사원으로 입사한 양씨는 올해 5월 대신증권 자회사인 대신투자신탁운용 상무이사로 선임돼 경영권 승계절차를 밟아왔다.

양씨는 2005년 2월 부친인 고 양회문 대신증권 회장으로 취임한 후



지분 185만8119주를 상속받았고, 지난 3월에는 숭진 동생 양홍준씨의 135만5천5주를 확보했다.

양씨는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일부 지분을 처분하고 현재 보통주 282만19주(지분율 5.55%)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다.

한편 대신증권에는 이 회장과 사위인 노정남 사장, 올해 초 입사한 양씨의 누나 양정연(28) 기획실 과장 등 일가족이 근무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1000개 돌파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1천개를 상회하는 대기록이 수립됐다. 1일 상보, 미래나노텍, 아이스 시테크놀로지, 네오티스 등 4개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전체 상장사는 1천1개(유추업권 1개사 제외)로 집계됐다.

상장기업 1천개 돌파는 코스닥시장이 장외주식시장으로 개설된 1987년 4월 이후 20년 6개월, 정규 주식시장으로 출범한 1996년 7월 이후 약 11년 3개월만이다.

이날 상장한 4개사의 주가는 첫날 공모가를 밑도는 급락세를 보였다. LCD 광학필름 전문업체인 상보는 시초가가 공모가(1만5천원)보다 10% 높은 1만6천500원으로 정해지자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약세로 돌아서 시초가 대비 2천400원(14.55%) 내린 1만4천1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상보와 같은 업종인 미래나노텍은 공모가(3만7천원)보다 높은 3만8천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시초가보다 5천700원(15.00%) 하락한 3만2천300원으로 마감했다.